



# '부상' 김민재 넣고 '단골' 김영권 빼고... 수비진 세대교체 시작됐다

신태용호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E-1 챔피언십 우승 사냥에 나선다. 21일 축구회관에서 대회 엔트리를 공개한 신태용 감독은 출전 각오와 함께 전략구상을 밝혔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 사커 토크

엔트리 늘려 김민재 콜...재할도 관리 주전 GK 김승규? 이근호는 MF 실험 신 감독 "E-1 우승·월드컵 점검 병행"

다사다난했던 한국축구의 2017년이 끝을 향하고 있다.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의 올해 최종무대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다. 중국(9일)~북한(12일)~일본(16일) 이상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으로 이어질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대표팀은 칼을 갈고 있다.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대회 엔트리(24인)를 공개한 신 감독은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도 준비해야하지만 우승도 노리고 있다. 멋진 경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요 키워드로 대표팀 엔트리를 살펴봤다.

### ●골키퍼

뜨겁던 수문장 경쟁이 마무리된 분위기다. 김승규(27·빗셀 고베)가 주전을 굳혔다. 일본 J리그에서 가장 인정받는 한국 골키퍼다. 여기에 김진현(30·세레소 오사카), 조현우(26·대구FC)가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 콜롬비아(수원·2-1 승)~세르비아(울산·1-1 무)로 이어진 11월 A매치 시리즈는 김승규와 조현우가 골문을 책임졌다. 특히 조현우는 세르비아 평가전에서 A매치에 첫 출전한 선수답지 않게 안정적인 몸놀림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부상과 컨디션 난조 등이 아니더라도 이상의 변화는 주기 어려운 전망이다. 최후방 수비로 동료들을 컨트롤해야 하는 포지션의 특성상 새 얼굴을 포함시키기 어렵다. 신태용호가 출범한 이후 지금의 멤버는 바뀌지 않았다. 전원 해외파로 구성된 10월 유럽원정만 어쩔 수 없이 조현우가 빠졌다.

23명인데, 24명으로 늘린 배경이다. 이 과정에서 김영권(27·광저우 에버그란데)이 제외됐다. 홍정호(28·장수 푸닝)에 이은 빠른 세대교체의 시작이다. 이란~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마지막 2연전에서 주장 완장을 찬 그이지만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체중에 경기력까지 100% 상태가 아니다. 마음까지 무겁다. 지금의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면 월드컵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

●신태용 감독 출사표  
우승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2018러시아월드컵도 함께 준비할 생각이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선수와 전술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상대 전력이다. 일단 북한의 정보가 많지 않다.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가 있어 분석이 조금 수월하다. 기존 23명에서 한 명 늘어난 24명을 소집했다. 김민재(전북)가 부상 중이지만 앞으로 월드컵에 나설 수 있는 선수이기에 포함시켰다. K리그가 휴식기인 만큼 재활 역시 대표팀에서 담당할 책임자기도 했다. 최강희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마쳤다. (몇몇 선수들의 소속팀 일정이 대회와 겹침) 우선 FA컵 결승을 치러야하는 이정협(부산)은 AC L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배려하려고 한다. 2차전이 끝난 뒤 대표팀에 합류한다. 아산 무궁화에 입대하는 주세종과 이명주는 구단 측과 이야기가 잘 됐다. 둘 모두 소집부터 대회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감독이 내기 12월 월드컵 본선 조추첨 때문에 러시아로 잠시 다녀와야 한다. 그동안 코칭스태프가 훈련을 책임진다. 준비를 잘 마쳐 좋은 경기 하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시프트

11월 당시 공격수(FW)로 분류된 이근호(32·강원FC)가 E-1 챔피언십에선 미드필더(MF)로 이동했다. 대표팀은 4-4-2뿐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쓰리 톱을 염두에 둔 4-3-3과 전방에 무게를 실을 4-2-4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른 바, 플랜B다. 손흥민과 투톱을 이뤘던 이근호가 주먹을 받는다. 문전보다 측면에서 좀더 큰 역할을 했다. 권창훈(25·디종)도 빠지는 등 측면 멤버가 바뀐 상황에서 새 조합을 찾아야 할 신 감독으로서 배태광 공격수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K리그 MVP를 수상한 이재성(25·전북)도 측면과 중앙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시프트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 ●수비진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은 불안한 뒷문이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할 때 최소 4명 이상의 중앙수비수가 필요하다. 그 중 한 자리는 결정된 듯 하다.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김민재(21·전북현대)다. 대표팀은 부상 중인 김민재의 재발까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대표팀의 전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회 엔트리가

●신태용 감독 출사표  
우승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2018러시아월드컵도 함께 준비할 생각이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선수와 전술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상대 전력이다. 일단 북한의 정보가 많지 않다.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가 있어 분석이 조금 수월하다. 기존 23명에서 한 명 늘어난 24명을 소집했다. 김민재(전북)가 부상 중이지만 앞으로 월드컵에 나설 수 있는 선수이기에 포함시켰다. K리그가 휴식기인 만큼 재활 역시 대표팀에서 담당할 책임자기도 했다. 최강희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마쳤다. (몇몇 선수들의 소속팀 일정이 대회와 겹침) 우선 FA컵 결승을 치러야하는 이정협(부산)은 AC L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배려하려고 한다. 2차전이 끝난 뒤 대표팀에 합류한다. 아산 무궁화에 입대하는 주세종과 이명주는 구단 측과 이야기가 잘 됐다. 둘 모두 소집부터 대회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감독이 내기 12월 월드컵 본선 조추첨 때문에 러시아로 잠시 다녀와야 한다. 그동안 코칭스태프가 훈련을 책임진다. 준비를 잘 마쳐 좋은 경기 하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12월 EAFF E-1 챔피언십 남자엔트리 (24인)

포지션	이름(나이)	소속
GK	김승규(27)	빗셀 고베(일본)
	김진현(30)	세레소 오사카(일본)
	조현우(26)	대구FC
DF	윤영선(29)	상주 상무
	장현수(26)	FC도쿄(일본)
	권창훈(25)	톈진 쉐안젠(중국)
	정승현(23)	사간 도스(일본)
	김진수(25)	전북 현대
	고요한(29)	FC서울
	김민우(27)	수원 삼성
MF	김성준(29)	성남FC
	이정협(23)	충진 리베(중국)
	이재성(25)	전북 현대
	이근호(32)	강원FC
	염기훈(34)	수원 삼성
	이명주(27)	FC서울
	이정협(26)	부산 아이파크
FW	진성욱(24)	제주 유나이티드
	김신욱(29)	전북 현대



## "지소연 빈자리에 이민아" 여자대표팀도 E-1 첫 우승 조건

지소연 결장 대비 다양한 포메이션 준비 내달 8일 일본과의 1차전부터 총력 다짐

2019프랑스여자월드컵을 바라보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2017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을 발판삼아 영광 재현에 나선다.

윤덕여(56) 감독은 2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E-1 챔피언십 최종엔트리 23명을 발표하고 대회 우승을 다짐했다. 23명 모두 국내파로 구성됐다.

4월 평양 원정에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아컵 예선을 무사히 통과한 여자대표팀은 현재 중요한 단계를 앞뒀다. 바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내년 4월 요르단에서 열리는 여자아시아컵 본선에서 5위 안에 들면 곧바로 프랑스행이 확정된다. 직전 2015캐나다여자월드컵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뤄낸 태극낭자들은 당시 영광을 한 번 더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다음달 열리는 E-1 챔피언십이 조지력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윤 감독은 "같은 대회에서 2013년 3위, 2015년 2위를 했다. 이제 순서대로 우승을 할 차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승이 쉽지 않으리라 본다"며 방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측는 지소연(26·첼시 레이디스)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해외파 지소연은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대표팀으로서 핵심 공격 자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체 1순위는 WK리그에서 활약을 펼친 이민아(26·인천 현대제철)다. 윤 감독은 이민아를 중심으로 여러 전술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엔트리를 확정된 여자대표팀은 27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이틀간 몸을 푼 뒤 29일 일본으로 떠난다. 이어 다음달 지방별 소규모 대회에서 8일 일본, 11일 북한, 15일 중국과 차례로 만난다.

### ●윤덕여 감독 출사표

4월 개막한 WK리그가 여제(20일) 마무리됐다. 나를 포함한 모든 코칭스태프가 매 경기를 주시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다. 선발기준의 첫째는 경기력이다. 둘째는 노력이다. 2013년 3위, 2015년 2위를 했다. 이제 순서대로 우승할 차례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승이 쉽지 않으리라 본다. 일본과 1차전이 분수령이다. 1차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소연 결장 관련) 지소연은 대표팀에서 중요한 몫을 맡는 선수다. 합류 여부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4-1-4-1과 함께 4-2-3-1 포메이션을 같이 준비하려고 한다. (4월 평양원정에서 이어 다시 만나는 북한) 항상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아직 북한전 승리가 없다. 그래도 여러 번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적응도는 높다. 나와 선수들 모두 어떻게 경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이번만큼은 꼭 이겨보겠다. 역사를 만들겠다. 곽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12월 EAFF E-1 챔피언십 여자엔트리 (23인)

포지션	이름(나이)	소속
GK	강가에(27)	구미 스포츠토도
	김정미(33)	인천 현대제철
	김민정(21)	수원 FMC
DF	김혜리(27)	인천 현대제철
	임선주(27)	인천 현대제철
	김도연(29)	인천 현대제철
	장슬기(23)	인천 현대제철
	이은미(29)	수원 FMC
	신담영(24)	수원 FMC
	박초롱(29)	화천 KSPO
MF	조수현(29)	인천 현대제철
	이영주(25)	인천 현대제철
	이민애(26)	인천 현대제철
	이소담(23)	구미 스포츠토도
	최유리(23)	구미 스포츠토도
	강유미(26)	화천 KSPO
	이정은(24)	화천 KSPO
FW	손윤희(28)	화천 KSPO
	장 청(21)	고려대
	정설빈(27)	인천 현대제철
	유영애(29)	수원 FMC
한재린(21)	위덕대	
손화연(20)	고려대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땀 꼭 신고하세요

베트맨 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 모두 불법

"건강한 스포츠를 즐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1899-1119로 신고하세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주)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사행산업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일시 발매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불법 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스포츠 베팅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www.sportstoto.co.kr)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오직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벤테맨(www.betman.co.kr)만이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이외의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2012년 3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

격한 사람은 콜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산업감시 신고센터(1855-0112)'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1인 기준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케이토토는 "스포츠토도가 법을 준수하고 보다 건강한 스포츠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시 발매중단에 들어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 전체를 망치는 해악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발견하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 베트맨, 26일 오전 10시까지 서비스 일시 중단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도)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벤테맨(www.betman.co.kr)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26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서비스 중단에 들어간다. 사행산업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스포츠토도 발매중단과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시스템 개선작업은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점검을 통해 향후 고객들에게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동안 벤테맨에서 이뤄지는 모든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다. 작업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지난 회차 적중결과는 벤테맨 서비스 일시중지 페이지 내에 설치된 '적중결과' 링크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벤테맨 고객센터(help@betman.co.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벤테맨의 각종 서비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발매를 비롯해, 환급과 환불 등 일시 발매중단으로 중단된 모든 업무는 27일 오전 8시에 재개된다.